

글쓰기 윤리 교육을 위하여, <글쓰기 윤리 서약서>

믿기 힘들겠지만 여러 대학에서 글쓰기 교과목을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뒷이야기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학기말에 리포트를 평가하면서 있는 일. “이 글은 학부생이 쓴 것이라고 보기 힘든데, 예컨대 철학적 개념어를 자신의 문장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든지 이런 수준의 글을 학부생이 썼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잘 쓴 글(?)’이 있을 경우,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믿기지 않는 글’의 경우 바로 포털 사이트를 열고 해당 문장이나 표현 등을 검색창에 넣어본다. 그러면 여지없이 해당 내용의 문서나 자료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때 선생님은 발견(?)했다는 기쁨보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배신감,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한다. 강의 시간에 그렇게 ‘표절은 F다’, ‘표절검색시스템이 있다’라고 강조와 협박을 했지만 이런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학업과 취업 준비로 너무도 바쁜 대학생들에게 세상의 모든 리포트가 거래되고 있는 ‘리포트 월드’, ‘해피 캠퍼스’ 등의 존재는 강력한 유혹의 대상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를 두고 일반화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스스로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인용의 방법이나 표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표절’에 해당하는 글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서울대학교 글쓰기교실이 글쓰기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 ● ●
박 정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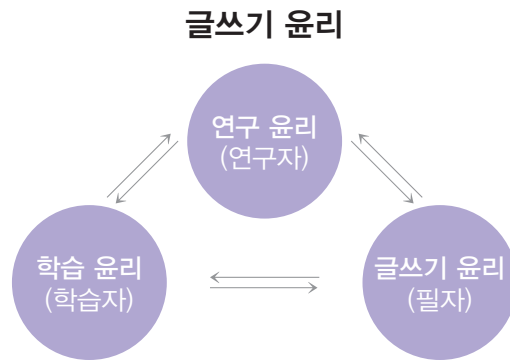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교수

<학습윤리>와 <글쓰기 윤리>

대학교육에서 학습윤리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학습윤리라고 해서 그것이 학습자인 ‘학생’에만 국한되는 것인 양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교육

의 주체를 학습자와 교수자로 구분하여 ‘학생’이 지켜야 하는 윤리와 ‘교수’가 지켜야 하는 윤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인 양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이는 단지 ‘교육’을 위한 구분일 뿐, 학생은 학습자이면서 동시에 (예비)연구자이기 때문에 글쓰기 윤리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일반적으로 학습윤리의 차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출석, 2)시험, 3)협동 학습, 4)과제물 작성 및 제출 등이 그것이다. 출석의 경우 대리출석, 무단조퇴 등이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의 경우에 공정한 평가를 방해 왜곡하는 부정행위 등이 비윤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팀 혹은 조별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협동학습의 경우에 이른바 무임승차(free-riding) 등이 대표적인 비윤리적 행위이다. 과제물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비윤리적인 행위에는 작성 과정에서의 위조·변조·표절 등과 제출에서의 중복제출 등이 해당된다. 여기서 학습자는 (예비)연구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과제물 작성 및 제출의 차원에 대한 사항이 중요하다. 올바른 연구의 실천과 관련된 <연구윤리>는 교수자인 연구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비연구자인 학습자의 교육을 위해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예비)연구자의 차원을 염두에 둘 때 글쓰기의 행위에 대한 윤리교육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같이, <학습윤리>와 <연구윤리>의 차원에서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 <글쓰기 윤리>라 할 것이다. <연구윤리>는 연구의 계획과 연구의 진행과정 그리고 그 연구결과 발표에 이르는 전(全)과정을 수행하면서 실천해야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모든 과정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글쓰기 윤리>이다. 다시 말해 <글쓰기 윤리>는 단순히 연구의 결과를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연구의 전(全)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쉬운 예로 글쓰기에서의 표절은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결과(기록) 등의 차원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글쓰기교실의 <글쓰기 윤리> 교육 현황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과 <글쓰기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여기서 재차 강조할 생각은 없다. 문제는 그 교육의 방법과 실제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서울대학교 글쓰기교실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글쓰기 윤리> 교육에 대해서 소개하고 개선 방향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글쓰기교실은 학내의 비교과(非敎科) 글쓰기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다. 글쓰기교육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상담과 워크숍 운영이 그것이다. 학생들이 교과목 글쓰기 과제물(리포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일대일 대면지도를 통해 교육하는 상담프로그램은 연간 1,800건이 넘는 글을 상담하고 있으며, 워크숍을 비롯한 글쓰기 교재개발 및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글쓰기 교육 관련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고 있다.

글쓰기교실은 이러한 다양한 글쓰기교육 과정 속에 <글쓰기 윤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일대일 대면지도로 이루어지는 상담 프로그램은 <글쓰기 튜터링>과 <글쓰기 클리닉>으로 나눌 수 있다. <글쓰기 튜터링>의 경우 학생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이루어지는 일 반상담, (이메일)온라인 상담, 당일방문 상담 등이 있으며 모두 1회성 상담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글쓰기 클리닉>은 정규학과와 방학 시즌에 참여 학생을 선발하고 한 학생에게 4회 이상의 단계별지도 및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일대일 대면지도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원은 상담과정에서 글쓰기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 1학기부터 각 상담에 참여한 학생이 작성하는 설문지 항목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포함시키고 있다.

5. 이번 상담을 통해 표절 및 인용법 등과 관련한 글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이러한 내용은 일대일 대면지도 상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글쓰기교실에서 운영하는 워크숍과 특강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영하고 있다. 글쓰기 교육 강좌에 참여하는 교수자에게도 <글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을 설명하고 강의에 이 내용을

반영해주기를 요구하고 설문지에 해당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설문결과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보고할 계획임)

한편 글쓰기교실에서는 <글쓰기 윤리> 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교재 및 온라인 강좌를 개발하여 책자와 온라인 자료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료들은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http://ctl.snu.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글쓰기교실에서 제공하는 <글쓰기온라인 강좌> 가운데 <리포트작성법 코스워크: 제9강 인용법 및 주와 참고문헌의 작성>이 있다. 이것은 인용의 중요성과 인용법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홈페이지 [글쓰기 프로그램-자료실-글쓰기온라인 강좌]로 접근). 그리고 <출전표기 및 참고문헌>이 있다. 이것은 해당 학문 혹은 전공별로 다양한 출전표기 방식과 참고문헌 작성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글쓰기 교실에서 개발 제공하는 ‘연구노트’ 시리즈 가운데 <글쓰기 윤리>와 관련해서 이정민의 「논문 작성의 윤리」(제7권), 김태완의 「(개정판) 인용법」(제16권) 등이 있으며, 이는 홈페이지에서 [글쓰기 프로그램-자료실-e-book-연구노트 시리즈]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한편 글쓰기교실에서는 온라인 강좌 및 교육 자료 제공과 아울러 2016년 1학기부터 「인용법 어디까지 아니?」라는 정기 특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회성 특강에 머무르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달 1회씩 학기당 3회를 개설하고 있다. 강의 내용은 ‘표절피하기를 넘어서’, ‘출전 및 참고문헌 작성법’에 대한 것과 아울러 ‘인용법 적용 연습’을 포함시켜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글쓰기 윤리 서약서> 제정과 그 실천을 위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은 작년에 자연대에서 발생한 1학기 중간고사 커닝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대학 차원에서는 커닝에 대해 ‘처벌’과 ‘제재’라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해당 단과대학에서는 오히려 ‘무감독 시험’이라는 방법을 포함해 외국의 일부 명문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아너 코더 Honor code(명예 서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학생 스스로 자긍심을 키우고 명예롭고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고민하겠다는 해당 단과대학의 입장은 처벌과 제재의 방법보다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른바 ‘아너 코더’는 학습윤리를 포함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글쓰기 윤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글쓰기교실에서는 앞서 말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글쓰

기 윤리)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지만, 제한된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글쓰기교실에서는 가칭 <서울대학교 글쓰기 윤리 서약서>(案)를 제정하고 교수와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학내에서 제출되는 글쓰기 과제물에는 이 서약서를 첨부하게 하는 방안을 개발 중이다. 서약서의 개발과 실천의 한 시험적 방안으로 글쓰기교실의 대표적인 사업인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응모 신청서에 아래와 같은 <글쓰기 윤리 서약서>를 2015년 2학기부터 작성하여 응모하게 하고 있다.

글쓰기 윤리 서약서

본인이 제출한 리포트는 글쓰기 윤리를 준수했음을 서약합니다.

- 1) 이 글쓰기 과제물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구매하지 않고 내가(우리가) 직접 연구하고 작성한 것이다.
- 2) 정확한 출처 없이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를 가져오지 않았다.
- 3) 인용한 모든 자료는 왜곡하지 않았으며 인용표시를 바르게 하였다.
- 4) 과제물 작성 중 도표나 데이터를 위조 혹은 변조하지 않았다.
- 5) 이 과제물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동 제출자로 명기하지 않았다.
- 6) 해당 과제물의 동일한 내용을 다른 교과목의 과제물로 제출한 적이 없다.

본인이 제출한 리포트는 이상의 글쓰기 윤리를 준수했음을 서약합니다.

확인자 _____ (서명)

* 이상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수상은 취소됩니다.

학생들이 글쓰기 과제물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의 서약서의 내용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글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행위의 교육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각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완하여 교육하는 것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예컨대 앞서 학습윤리의 차원에서 ‘협동학습’과 관련해 무임승차의 비윤리적 행위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5)의 경우 팀 혹은 조별 글쓰기 과제물 작성 같은 ‘협업적 글쓰기’ 상황에서 개인과 팀이 지켜야 하는 글쓰기 윤리적 차원의 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6)의 경우와 같이 한 교과목의 과제물을 다른 교과목 혹은

다른 목적으로 또 다시 제출하는 것과 관련한 이중제출 혹은 중복제출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상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가다듬어, 글쓰기교실은 〈서울대학교 글쓰기 윤리 서약서〉를 개발 및 제정하여 교수자와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교수자는 강의계획서 등에 이 서약서의 존재를 알려주고 학생들이 글쓰기 과제물을 제출할 때 표지 혹은 속지에 첨부하도록 하고, 학생들은 해당 서약서를 인지하고 교수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서약서 작성 행위를 통해 글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서약서를 제정하여 실천하는 목적이라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표절과 협업적 글쓰기, 이중제출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이 서약서가 〈글쓰기 윤리〉 교육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